

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 방문 인사말씀 *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음

- 안녕하십니까.
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.
-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저는 취임 후 첫 경제단체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, “중소기업은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고 계신 우리 경제의 뿌리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잘된다” 고 말씀드렸고,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
-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
- 오늘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노조법 2·3조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고,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우선, 이번 법 개정은 결코 ‘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’ 나 ‘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’ 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.
- 오히려 현장에서 반복되어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, 예측 가능한 교섭질서를 회복하며,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입니다.
이를 통해 대화의 길을 열고,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,
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입니다.

①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은 ‘대화 촉진법’입니다.

- 한국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갈등과 분쟁의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되어 왔습니다.
- 이번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들과, 근로조건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합니다.

②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은 ‘상생의 법’입니다.

- 개정안은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등과 같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‘공급망 전반에 대한 책임’이라는 흐름과도 방향을 같이 하는 법으로,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.

③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‘진짜 성장법’입니다.

-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, 책임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직접 대화가 가능해지면서, 불필요한 충돌과 분쟁이 줄어들고, 장기적으로는 기업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.

-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, 우수인력 확보, 조직 안정성,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도 개선될 것이며,
- 원하청이 상생하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.

- 물론,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,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 이러한 우려와 불안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.
-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여,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반영하고,
- 교섭절차,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, 모호함,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.
- 시행 전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 설명드리며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.
- 특히, 원하청간 교섭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-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,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.

- 원하청 간 책임이 명확해지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소기업의 법적·행정적 리스크가 줄어들고,
 -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.
- 이번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이 현장의 변화를 촉발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중소기업계에서도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여러분, 오늘 이 자리가 오해를 줄이고, 더 나아가 한국의 노동시장 제도와 기업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-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일관된 법 집행, 그리고 책임있는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여러분과 끝까지 소통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.
 - 오늘도 여러분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정부가 더 나은 제도를 설계해 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